

제8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2016 제주선언문

1. 서 문

- 1.1. 2016년 8월 27일~8월 28일, 제8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가 대한민국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장관, 일본 문부과학성 마쓰노 히로카즈 대신, 중국 문화부 덩웨이 부부장이 참석하였다.
- 1.2. 우리는 2007년 3국 문화장관회의가 시작된 이래 ‘광주 공동합의문(2013)’, ‘요코하마 공동선언문(2014)’에서 밝힌 ‘공동의 가치추구를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구축’이라는 정신을 계승하여 왔다. 또한 2015년 합의한 ‘2015~2017 칭다오 액션플랜’을 통하여 3국 협력이 문화적 교류확산과 이해의 가속뿐만 아니라 3국 모두에게 사회·문화적 포용과 가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해왔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 1.3. 우리는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며, 오랜 기간 구축해온 한중일간 문화교류 확대와 연대강화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 1.4. 우리는 3국이 유치하는 국제행사 및 올림픽 등 스포츠경기에서 보다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한중일 공동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아시아를 넘어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동아시아적 가치 창출에 노력하자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2. 한중일 문화발전을 위한 비전의 구현과 이행강화

- 2.1. 우리는 3국의 문화 발전을 위한 동아시아 문화 비전의 구현에 노력한다.

한중일 3국은 역대 문화장관회의의 기본 정신인 “문화를 통해 3국 모두의 국가와 도시를 발전시키고, 국민에게 혜택을 주며, 세계 속 동아시아의 정체성을 강화한다.”는 정신을 재확인하고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 2.2. 우리는 3국의 문화적 번영과 발전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있으며 정부차원의 문화교류 이외에도 다양한 민간교류 확대의 필요성에도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러한 차원의 지속가능한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 간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3국 협력 사업추진을 위한 이행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 2.3. 우리는 문화산업의 교류와 협력을 다지고 문화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인 저작권 보호를 위해 상호 협조하고 노력하자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3. 동아시아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체화

- 3.1. ‘국가와 도시의 발전’과 ‘동아시아 문화정체성의 강화’는 그간 우리가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 추진의 기본 가치이다.
- 3.2. 우리는 2017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서 한국의 대구광역시, 일본의 교토시, 중국의 창사시를 선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동아시아 문화도시간의 활발한 교류를 기대한다.
- 3.3. 우리는 3국의 우호 협력 관계가 심화될수록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 번영에도 기여하는 바 동아시아문화도시 네트워크와 같은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 3.4. 3국의 동아시아문화도시에 관한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3국 문화부는 ‘동아시아문화도시 네트워크’ 구성관련 원칙에 합의 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가 간·문화도시 간의 지속적인 연계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4. 한중일 공동의 문화가치 발굴과 인적교류 확대

- 4.1. 우리는 3국의 공동적 문화가치의 발굴 및 공유를 통해 한중일 3국 모두가 조화로운 사회형성을 지향하자는 방향에 합의하였다. 국민 간 교류와 협력이 3국간 이해의 확대에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상호 이해와 신뢰증진을 위해 다양한 인적·문화적 교류를 확대·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 4.2. 우리는 3국간의 문화교류에 있어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 공공문화기관간의 인적 교류확대를 통한 3국 협력의 실질적 효과 제고를 위하여 관련 기관간의 네트워크 및 연구교류, 박물관 전시 교류 등과 같은 협력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 4.3. 우리는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3국 청년간 문화예술 및 ‘한중일 학생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사업’과 같은 문화콘텐츠산업분야의 교류증진과 교육훈련 기회 제공을 통해 청년 고용창출에 기여하기로 의견을 같이 하였다.
- 4.4. 우리는 3국간에 자국의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젊은 예술가를 포함한 문화인·예술가를 상호 파견하는 동아시아 문화교류사절단 사업의 유효성을 인식하며, 앞으로 계속해서 협력하자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5. 한중일 문화올림픽 프로그램 실현을 통한 상생발전 추구

- 5.1 우리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대회, 2020년 도쿄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대회,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 대회가 미래 세대의 문화자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스포츠와 문화를 융합한 ‘한중일 문화올림픽’ 프로그램(학술 심포지엄, 공동작품 창작·발표 및 축제 등)의 공동개발과 추진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 5.2. 또한 올림픽·장애인올림픽대회 개최를 계기로, 개최도시인 평창, 도쿄, 북경에 각국이 문화사절단(예술가, 예술단)을 파견하는 등 국제무대에

서 문화예술제를 포함한 문화행사를 적극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공동으로 동아시아문화를 널리 알리고 그 매력을 선보이며 한중일 3국의 연이은 올림픽 개최의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기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6. 문화유산 교류협력의 지속 추진

- 6.1. 우리는 한중일 3국이 보유한 유·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및 계승을 위해 밀접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하고 각국의 성공사례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한중일 문화유산 국제협력 및 향후 세계 각국의 문화유산 보호 및 계승의 협력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
- 6.2. 우리는 무형유산이 인류의 삶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대대로 전승되는 진귀한 자산이라는데 뜻을 같이하고, 무형문화재 분야의 유네스코 카테고리 2센터[아태무형유산센터(ICHCAP), 아태국제훈련센터(CRIHAP),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연구센터(IRCI)]들의 활동을 지원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형문화재 보호 및 전수를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 6.3. 우리는 무형문화유산 계승자 및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의 교류 및 기술 향상을 위해 해외교육·연수 및 교류행사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로 의견을 같이 하였다.

7. 결론

- 7.1. 우리는 한중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동아시아의 미래지향적 문화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동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 7.2. 한중일 3국은 동아시아문화도시, 한중일예술제, 한중일 예술포럼, 동아시아 문화교류사절단 등 현재까지의 장관회의 성과가 3국 문화교류의 심화, 실무협력추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상기 성과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동의하였다.

7.3. 2017년 ‘제 9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는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회의 일정과 의제 등 추가적인 사항에 대한 사전협의를 위한 국장급
회의는 개최국에서 주최하기로 하였다.

본 합의문은 2016년 8월 28일 제주도에서 서명한다.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 종 덕

일본국 문부과학성 대신
마쓰노 히로카즈(松野 博一)

중화인민공화국 문화부 부부장
딩웨이(丁伟)